

청소년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표상 및 성고정관념

정 태 연[†] 이 윤 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표상이 청소년의 성별 및 평가자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성인 123명(남: 42명, 여: 81명), 교사 49명(남: 6명, 여: 43명), 대학생 93명(남: 44명, 여: 49명)이 청소년과 관련된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성격적으로 청소년기는 미성숙한 아동기에서 성숙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는 독특한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과업 및 관계적 측면에서도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다운 청소년은 높은 외향성과 호감성 등과 같은 성격특성으로 규정되었으며, 신체적, 과업적 및 관계적 측면도 관련되었다. 행복한 청소년의 경우는 호감성과 같은 성격도 강조되었지만, 특히 신체적, 과업적 및 관계적 특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바람직한 청소년은 청소년다운 청소년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사회적 표상에서 평가자 유형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평가가 그들의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만이 있었으며, 성 간의 유사성이 더 강했다. 이러한 결과를 한국의 사회 및 문화적 특성 그리고 청소년기에 대한 성고정관념의 독특성 등과 관련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사회적 표상, 성고정관념, 성격특성, 신체적 특성, 과업적 특성, 관계적 특성, 자아특성.

[†] 교신저자 :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E-mail : tjung@cau.ac.kr

역사적으로 볼 때 청소년기가 모든 시대 및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을 성인과 다른 존재로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청소년기가 인생에서 그리 중요한 시기가 아니었다. 아동이 성인과는 다르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된 후에야 비로소 청소년기가 아동과 성인의 중간에 위치한 이행기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김정운, 2001). 비록 18세기 이전에도 오늘날과는 다른 청소년기가 존재했을 수 있지만(Speitkamp, 1998; 김정운, 2001에서 재인용), 청소년기에 대한 공식적인 인식은 20세기 초에 나타났다(Hall, 1904). 즉, 산업의 발달로 청소년들의 일자리를 성인들이 대체함으로써, 10대들은 어른들과 분리되어 많은 시간을 또래들과 보낼 수 있었다. 이때, 그들은 순진무구한 아동과는 구별되는 그러나 아직까지 어른의 역할을 맡을 수는 없는 존재로 지각되었다.

특히, 오늘날 사회에서는 청소년기는 그 나름대로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 청소년기 동안에는 역할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 문제, 확대된 교육문제, 이성 문제, 진로 문제, 가치관 문제 등 지금까지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정체감을 획득하기 위하여 가족 등 타인과 형성한 과거의 유대 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 더욱이, 현대사회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노동력을 요구함으로써, 청소년기는 그러한 지식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의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청소년기 자체가 길어지게 되었다(Hartung & Sweeney, 1991).

이에 한국사회도 청소년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대학 내 청소년학과의 등장은 청소년에 대한 한국사회

의 높은 관심과 학술적 연구에 대한 요구의 한 반응이다. 제도적으로도 한국사회는 여러 병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는 조기교육과 대학입시 등 교육적으로도 아동 및 청소년의 학업 성취를 극대화하는데 크게 몰입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가 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관심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청소년을 개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즉, 한국인이 청소년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표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근래의 연구는 많지 않다.

청소년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표상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사회가 청소년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즉, 아동기의 발달을 기초로 하여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발달과정 속에서 청소년들의 양육과 교육을 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청소년과 관련된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남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 성인, 대학생 등 다양한 유형의 참가자들을 이용하여 한국인들이 남녀 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표상 및 성고정관념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대상을 선정한 이유로, 우선 교사와 성인은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을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곧 청소년에 대한 그들의 양육 및 교육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은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집단으로,

청소년기 전체를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집단의 일부로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시기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청소년기에 대한 사회적 표상

사회적 표상이론(Moscovici, 1981; 자세한 논의는 최상진, 1998 논문을 참조)에 따르면, “사회적 표상은 대인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념체계, 진술체계 그리고 설명체계로서, 그것들은 일상생활과정에서 생성된다.” 또한, “사회적 표상은 세계에 대한 의견, 이미지 또는 태도와 같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론체계 또는 지식체계로서, 현실의 발견이나 조직화를 위해 사용되는 독립된 체계”이다. 즉, 사회적 표상은 가치체계, 아이디어체계 그리고 행위로의 실천체계를 총체적으로 지칭한다. 사회적 표상은 개인에게 물질세계와 사회적 세계를 이해하고 통제하는데 필수적인 질서를 제공해 주고, 세계의 제반사항에 대한 법칙을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든다(Jaspars & Fraser, 1984).

사회적 표상이론은 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준의 해석방식이 아니라, 사회 속에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사회적 실체로서의 해석방식 그리고 해석에 사용되는 총체적인 이론과 해석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관심을 둔다. Farr(1987)의 표현을 빌면, “사회적 표상은 세상에(in the world) 있으며 동시에 머리 속에(in the head) 있다.” 따라서, 사회적 표상이론은 주체와 객체, 인식과 대상, 지각자와 대상물을 따로 독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혼합된 실체가 사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사회적 표상이론에서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면 가시적인 행동이건 추상적 현상이건 또는 인지-감정-정신적-종교적 과정이건 모두 사회적 현상으로 파악하여 사회적 표상이론의 준거현상이 될 수 있다. 즉, 문화적인 모든 현상은 사회적 표상이론의 연구대상이 된다.

사회적 표상이론에서는 사회적 표상을 자극에 대한 종속변수뿐만 아니라 독립변수로도 보며 동시에 행동에 대한 독립변수로도 본다. 즉, 사회적 표상이 자극을 해석하고 동시에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표상과 자극 간에는 순환적인 관계가 있어서, 사회적 표상은 기본적으로 자극에 근거하여 형성되지만, 일단 형성된 사회적 표상은 그 자극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회적 표상은 단순한 설명개념이 아닌 설명되어야 할 현상이다. 사회적 표상은 특정 개념을 특정 자극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표상의 내용은 그 자극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표상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정체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표상과 관련해서, 서구 사회의 구성원들이 청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물론 청소년기의 특성들, 가령 신체적 발달과 성적 특성, 가족이나 친구 등 대인관계적 특성 등 구체적인 주제를 다룬 연구들 혹은 청소년기에 대한 자신들의 이론적 입장이나 견해를 제시한 경우가 전부이다. 예를 들면, 루소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는데(Cole & Cole,

2001), 첫째, 생물학적 성숙으로 인해 청소년기는 정서적으로 심한 갈등을 경험하는 불안정한 시기이다. 둘째, 청소년기의 생물학적 및 사회적 변화는 심리적 과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청소년들이 자의식적인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된다. 셋째,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겪었던 변화를 되풀이하게 된다.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두 번 태어나는데, 아동기 때는 생존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청소년기 때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프로이드의 발달이론에서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성기기는 그에게 특별한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안나 프로이드는 청소년기에 대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설명을 확대하여 이 시기를 혼란과 갈등의 시기로 규정하였다(김정운, 2001).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잠복기를 지난 이 시기에 자아와 원초아의 갈등이 재현되는데, 원초아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방어기제를 사용하거나 혹은 자아의 패배로 원초아의 본능적 욕구가 행동을 지배할 경우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방황과 혼란의 시기일 수밖에 없다.

안나 프로이드의 이러한 견해는 청소년기를 ‘질풍과 노도’의 시기로 보는 Hall의 견해와 상통한다. 이와 유사하게, Friedenberg(1959)는 청소년들이 부모 등 권위적 인물과의 갈등과 대립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청소년기가 갈등과 방황 등을 수반하는 독특한 시기로 이해한다. 그러나 Bandura(1964)는 청소년들이 반드시 질풍과 노도의 시기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갈등과 방황이 반드시 청소년기의 특성인 것은 아니다. Erikson(1959)은 이러한 두

입장을 통합하여 청소년기를 반항과 갈등의 시기만도 아니고 복종과 동조의 시기만도 아닌 정체성 확립과 정체성 혼미의 사이에 놓여 있는 시기로 보았다.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사회적 표상을 다룬 연구 역시 거의 없다. 최근에 정태연, 최상진과 김효창(2002)은 개방형 질문을 이용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기에 대한 한국대학생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청소년은 성격이나 자아개념, 신체적 및 과업적 특성에서 아이와 어른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고 있었다. 즉, 성격 및 신체적 성숙과 자아의 독립성과 직업적 정체성 등의 측면에서 어른으로의 이행기에 있었다. 또한, 행복하거나 불행한 청소년은 아이 및 어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적 특성과 과업적 특성 혹은 환경적 특성에 의해 크게 결정되었다. 즉, 가족과 친구와의 원만한 관계, 경제적으로 풍요한 환경이나 학교에서의 높은 성취가 청소년들의 행복을 결정했다. 그러나 청소년의 바람직성은 아이의 경우와는 달리 성격에서의 높은 호감성과 성실성 이외에도 자아 관련 특성, 관계적 특성 및 과업적 특성에 의해서도 규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라는 발달단계의 독특성 및 한국사회의 관계 및 가족 중심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정태연 등(2002)의 연구가 가지는 한 가지 제한점은 대학생만을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교육이나 양육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교사나 부모가 그들에 대하여 어떤 사회적 표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기존 연구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거나 그시기를 갓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적

으로 말해서 당사자들이 청소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속한 시기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행동이란 상호적인 특성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사나 부모가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사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교육목적이나 교육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모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 역시 양육방식이나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성인들이 청소년에 대해 갖고 있는 사회적 표상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표상에 존재하는 성고정관념

정태연 등(2002)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계점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에서 남녀에 따른 성차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회인지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자세한 내용은 Fiske & Taylor, 1994 참조), 타인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성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사회적 표상은 남녀에 따른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과 관련될 수 있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형성하여 남녀에 대한 왜곡된 지각이나 평가 및 차별을 야기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표상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사람들의 성에 관련한 인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든 문화는 남녀에게 적합한 작업과제, 활동, 그리고 성격특성 즉 성역할을 규정하고 있

으며 이런 규정은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르다(Mussen & Kagan, 1979).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회는 남자 위주로 조직화되어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공격적이고 지배적이며,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신체적으로 힘들고 위험한 일을 수행하는 반면, 여성은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이나 가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성역할은 Parsons와 Bales(1955)가 기술한 남편-아버지의 도구적 역할 그리고 아내-어머니의 표현적 역할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성에 따른 서로 다른 역할의 수행이나 기대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회는 성역할 고정관념 즉, 특정 행위나 활동이 남성 또는 여성에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고(송명자, 1995)를 발달시키는데, 이러한 고정관념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기도 하며, 자신의 자아개념과 성역할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남성적 고정관념은 도구적인 것 또는 능력적 범주로, 여성적 고정관념은 온정적이고 표현적인 범주로 분류된다. 예컨대 지배적, 독립적, 경쟁적, 지적, 건강함, 자신감, 공격적, 결단적, 논리적인 특성은 남성을 묘사하며, 복종적, 의존적, 정서적, 흥분적, 온정적, 동정적 등의 특성은 여성을 묘사하는 것이다(Broverman, Vogel, Broverman, Clarkson & Rosenkrantz, 1972; Spence, Helmreich & Stapp, 1974).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성역할 혹은 성별 특성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아동초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아동 중기 이후까지 계속 되다가 청소년기에 완성된다고 보고 있다(Serbin, Polishta & Gulko, 1993). 예를 들면, 미국 아동은 취학 전에 성고정관념을 학습하며, 초등학교 1-2학년 사이에 한 경험들이 이러한 고정관념을 강화했으며, 남아와 여아는 비슷한

양상으로 성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Williams, Bennett & Best, 1975). 한국의 8세 아동을 대상으로 성고정관념을 살펴본 한 연구(Lee & Sugawara, 1982)에서, 한국의 8세 아동들은 미국의 8세 아동들과 비슷한 성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남성의 성고정관념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아는 양성의 성고정관념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다.

성역할은 남녀 본래의 성차에 따라 발달하기보다는 전통적 성역할이 사회화된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형성에는 개인차와 더불어 거의 모든 환경 변인이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정옥분, 2003),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생물학적인 요인과 문화적 기대, 부모의 역할, 아버지 역할과 아버지 부재, 형제의 역할, 또래 및 교사의 영향, 매스컴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연령, 성별, 사회계층, 가족형태, 종교유무, 어머니의 취업유무, 어머니의 남아 선호 경향, 형제자매의 구성 등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도서와 교과서, 교육과정과 교사의 태도와 행동 등도 주요 요인이 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회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성고정관념을 발달시키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고정관념이 청소년을 다양한 차원에서 청소년을 평가할 때에도 나타나는지 대학생,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했다. 정태연과 류원정(2004)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다운 아이 및 어른다운 어른을 평가할 때 전통적 성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뚜렷한 성고정관념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 기초하여, 개방적 질문을 통해 참가자들로 하여금 아동 및 어른과 다른 독특한 측면, 바람직한 측면, 행복한 측면, 청소년다운 측면 등에서 남녀 청소년의 특성을

기술하게 하여, 한국인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표상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참가자

본 연구에는 성인 123명(남: 42명, 여: 81명), 교사 49명(남: 6명, 여: 43명), 대학생 93명(남: 44명, 여: 49명)이 참가하였다. 성인 집단의 평균 나이는 38세였으며, 교사 집단의 평균 나이는 28.7세 그리고 대학생 집단은 21.5세였다. 이들은 모두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가했으며, 성인과 교사에게 참가에 따른 어떤 보상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대학생의 경우 참가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했다.

측정도구와 절차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남자아이과 대조되는 남자청소년 및 여자아이와 대조되는 여자청소년의 특성, 남자어른과 구별되는 남자청소년 및 여자어른과 구별되는 여자청소년의 특성, 남자다운 청소년 및 여자다운 청소년의 특성, 행복한 남자청소년 및 행복한 여자청소년의 특성, 그리고 바람직한 남자청소년 및 바람직한 여자청소년의 특성을 개방형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러한 질문을 구성한 이유는 이러한 측면들이 청소년을 인식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차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인과 대학생의 자료는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통해 수집하였다. 학기 초에 수강하는 학생들을 몇 개의 조로 편성하여 설

문지를 배부한 다음,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기말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때 수집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교사에 대한 자료는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특정 교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교사에게 설문지를 전달한 다음 자료 수집을 요청하였다.

결 과

개방형 질문지로 얻은 자료의 분석은 참가자들이 반응한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류기준은 기존의 연구(가령, 정태연과 류원정, 2004; 정태연 등, 2002)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참가자들의 반응을 잘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판단에 전적으로 근거한 것이다. 성격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Goldberg(1990)의 Big Five 분류체계인 외향성(extroversion), 호감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정서안정성(emotional stability)과 교양(culture)을 참조하여 5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신체 및 외모와 관련된 내용은 신체적 특성으로, 직업·학업 등의 성취와 관련된 반응은 과업적 특성으로,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내용은 관계적 특성으로, 자신의 내면적 주관, 신념 등과 관련된 반응은 자아특성으로, 주변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환경적 특성으로, 취미나 기호 등은 기호특성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자료분석은 문항 별로 참가자들의 유형(성인, 교사, 학생)에 따라 빈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분류차원과 평가자 유형에 따른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많은 비교에서 어느 구체적인 차원들 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는지의 여부가 연구결과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녀에 따른 아이 및 어른과 대조되는 청소년의 특성들

먼저, 남자아이 및 남자어른과 대조되는 남자청소년의 특성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성격차원은 남자아이(성인 37.1%, 교사 34.2%, 대학생 24.7%) 및 남자어른(성인 47.6%, 교사 63.6%, 대학생 57.3%)들로부터 남자청소년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어른과의 구분에서는 결정적이었다. 대체로 거의 모든 성격요인에 대한 반응이 비슷했지만, 남자아이와 대조되는 경우에 외향성과 호감성에 대한 반응이 좀 더 두드러졌다. 성격차원에서의 반응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측면에서 남자청소년은 남자아이에서 남자어른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있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남자청소년은 남자아이보다는 좀 더 성숙하는 특성을 그러나 남자어른에 비해서는 좀 덜 성숙한 특성들을 보였다. 그러나 외향성 등 성격적 측면에서는 남자아이뿐만 아니라 남자어른과도 다른 남자청소년 고유의 특성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남자청소년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면서도 활발하고 도전적 등 외향적이면서 내향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며, 반항적이고 감정적인 특성 등도 가지고 있었다.

성격을 제외한 나머지 차원에서도 남자청소년은 남자아이 및 남자어른과 대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신체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이 두드러진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남자아이 및 남자어른과 대조되는 남자청

표 1. 남자아이 및 남자어른과 대조되는 남자청소년의 특성들

차원	반응내용	성인	교사	대학생
남자아이와 대조되는 남자청소년의 특성들				
외향성	과묵한, 혼자 있는, 비밀 많은, 자기주장, 활동적	9.5	15.0	4.6
호감성	반항적, 거친, 비판적, 배려하는, 정의적인	9.5	10.8	11.9
성실성	독립심, 책임감	4.6	3.6	3.6
정서안정성	예민한, 고민 많은, 즉흥적, 감정 변화가 심한	4.7	1.8	1.8
교양	호기심, 판단력, 관심 많은, 깊은 생각, 다양한 경험	8.8	3.0	2.8
신체특성	신체적 변화, 멋 내기, 외모에 관심, 운동 선호	26.9	32.5	37.3
과업특성	미래에 대한 관심과 불안, 목표의식	4.9	3.0	5.1
관계특성	이성에 관심, 친구 및 의리 중시, 가족에 관심	23.2	24.1	22.7
자아특성	어른스러워지려는, 자신을 생각해 보는	6.8	6.0	2.1
남자어른과 대조되는 남자청소년의 특성들				
외향성	활발한, 도전적, 자유분방한, 혼자 있는	9.9	9.0	5.1
호감성	반항적, 자기중심적, 철없는, 순수한	10.3	13.2	15.4
성실성	책임감 부족, 인내심 부족, 의존적	6.2	11.4	9.7
정서안정성	충동적, 감정적, 무절제, 불만, 예민한	10.7	19.8	10.7
교양	사고력 부족, 호기심, 이상적 사고	10.5	10.2	16.4
신체특성	신체적으로 변화하는, 외모에 관심, 운동을 즐기는	12.4	13.2	10.2
환경특성	경계력 없는, 돈 걱정 없는, 제약이 많은	4.4	0.6	7.8
과업특성	꿈이 있는, 학업 부담, 미래를 고민하는	6.2	0.6	4.6
관계특성	이성에 관심, 친구 및 의리 중시, 부모 간섭이 싫은	17.6	10.2	10.2
자아특성	어른이 되고자 하는, 개성 중시, 유행에 민감	5.3	9.3	5.4

주. 남자아이와 대조되는 특성으로 나온 총 반응 수는 성인 591개, 교사 166개, 대학생 396개. 남자어른과 대조되는 특성으로 나온 총 반응 수는 성인 437개, 교사 166개, 대학생 483개.

소년의 특성들은 신체적인 측면에서 외모와 신체에 관심이 많고, 과업적인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관심과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적인 측면에서 가족이나 친구 등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특히,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자아 관련해서 자신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특성들은 남자청소년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이다. 즉, 남자아이에게서 남자어른으로 이행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특성들이 아니라, 남자청소년을 남자아이 및 남자어른과 구분 짓는 특성들이다. 부가적으로, 남자어른과 비교해서 남자청소년은 경제

표 2. 여자아이 및 여자어른과 대조되는 여자청소년의 특성들

차원	반응내용	성인	교사	대학생
여자아이와 대조되는 여자청소년의 특성들				
외향성	수다, 개방적, 자기주장, 비밀 많은, 혼자 있는, 수줍음	11.1	8.9	9.1
호감성	여성스런, 배려하는, 잘 웃는, 반항적	6.2	10.1	9.6
성실성	독립적	0.6	1.0	0.0
정서안정성	감성 풍부, 예민한, 감정변화, 화를 내는, 고민 많은	7.4	7.5	9.7
교양	생각이 깊은, 사고가 확장되는	3.5	3.7	6.2
신체특성	멋 내기 등 외모에 관심, 신체적 변화	36.2	31.7	34.8
과업특성	미래에 대한 고민, 꿈이 있는	3.9	6.0	4.4
관계특성	이성에 관심, 친구와 어울리는, 부모 간섭이 싫은	21.0	24.7	19.7
자아특성	연예인 동경, 유행에 민감, 정체성 고민	6.2	4.9	6.0
여자어른과 대조되는 여자청소년의 특성들				
외향성	수다, 자기주장, 적극적, 비밀 많은, 수줍어하는	5.3	5.1	8.7
호감성	순수한, 철없는, 자기중심적, 반항적, 거친	6.0	16.3	8.7
성실성	책임감 있는, 무책임한, 의존적	4.7	3.1	2.8
정서안정성	감성 풍부, 잘 웃는, 발랄한, 예민한, 충동적, 신경질적	13.1	17.5	14.3
교양	호기심, 비현실적, 무분별	5.2	7.6	9.2
신체특성	화장, 멋 내기 등 외모에 관심, 신체적 변, 예쁜	12.0	17.4	17.2
환경특성	경제력이 없는, 제약이 있는	1.7	1.1	4.2
과업특성	꿈이 많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6.9	3.1	3.5
관계특성	이성에 관심, 친구 중시, 타인 의식	17.6	20.0	16.6
자아특성	연예인에 관심, 유행에 민감, 어른스러워지고자하는	11.8	10.0	12.5

주. 여자아이와 대조되는 특성으로 나온 총 반응 수는 성인 486개, 교사 186개, 대학생 385개. 여자어른과 대조되는 특성으로 나온 총 반응 수는 성인 466개, 교사 160개, 대학생 433개.

력이 없어 제약을 받지만 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격 및 기타 차원에서 평가자들 간 즉, 성인, 교사, 대학생 간에 반응비율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반응패턴이 유사해서 이들 간에 전적으로 상이한 측면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단지, 교사들이 남자어른과 대

조되는 남자청소년의 특성으로 성격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자아이 및 여자어른과 대조되는 여자청소년의 특성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남자청소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격 차원은 여자아이(성인 28.2%, 교사 31.2%, 대학생 34.6%) 및 여자어른(성인 34.3%, 교사 49.6

%, 대학생 43.7%)들로부터 여자청소년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여자아이보다는 여자어른과 대조적인 측면에서 성격적 반응이 더 많은 경향이 있었다. 성격차원에서의 반응 내용을 살펴보면, 호감성, 성실성 및 교양 측면에서 여자청소년은 여자아이보다는 좀 더 성숙하는 특성을 그러나 여자어른에 비해서는 좀 덜 성숙한 특성들을 보였다. 그러나 외향성과 정서안정성 차원의 경우 여자청소년은 여자아이 및 여자어른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수다스러우면서도 비밀이 많고 수줍어하는 등 내외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며,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감정적이며 변화가 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자청소년은 반항적 등의 고유한 특성도 가지고 있었다.

남자청소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자청소년은 성격을 제외한 나머지 차원에서도 여자아이 및 여자어른과 대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신체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이 두드러진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자아이 및 여자어른과 대조되는 여자청소년의 특성들은 신체적인 측면에서 화장, 멋 내기 등 외모에 관심이 많고, 과업적인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관심과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적인 측면에서 친구관계 특히, 이성관계에 관심이 많았고, 자아 관련해서 유행과 연예인 등에 대한 관심이 컸다. 또한, 이러한 특성들은 여자청소년이 여자아이로부터 여자어른으로 이행해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라, 여자청소년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남자청소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격 및 기타 차원에서 평가자들 간 즉, 성인, 교사, 대학생 간에 반응비율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반응패턴이 유사해서 이들

간에 전적으로 상이한 측면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단지, 교사들이 여자어른과 대조되는 여자청소년의 특성으로 성격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이 및 어른과 대조해서 나타난 남자청소년 및 여자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 둘 사이에 상당히 큰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성격의 외향성 차원에서 남자청소년은 활발하고 도전적이며 과묵한 특성이 있는 반면, 여자청소년은 수다스러우며 수줍어하는 특성이 있었다. 또한, 자아 관련 특성에서도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이 유행에 더 민감한 특성이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측면에서는 남녀 청소년이 매우 유사했다. 그래서 성격적인 측면에서 아이보다는 더 성숙하고 어른보다는 덜 성숙한 측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고유한 특성들을 남녀 모두 공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 관계적, 과업적 및 자아 관련해서도 남녀 청소년은 이 시기에 독특한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가자의 유형에 상관없이 여자어른과 대비되는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어른과 대비되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성격적인 측면에 관한 반응이 더 많았다.

남녀에 따른 청소년다운 청소년의 특성들

남자다운 청소년 및 여자다운 청소년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남자다운 청소년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남자다운 청소년은 성격의 다양한 측면에서(전체적으로 성인 48.8%, 교사 70.4%, 대학생 46.3%) 매우 성숙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높은 외향성과 호감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적극적이고 도전적 특성, 타인에 대한 배려와 순종, 책임감과 정서

표 3. 남녀에 따른 청소년다운 청소년의 특성들

차원	반응내용	성인	교사	대학생
남자다운 청소년의 특성들				
외향성	씩씩한, 도전적, 자신감, 용기, 활발한, 과묵한	17.5	23.5	17.1
호감성	배려, 예의, 어른 공경 및 순종, 봉사	16.2	18.2	15.6
성실성	책임감, 부지런한, 지도력 있는	4.9	7.8	5.3
정서안정성	쾌활한, 긍정적, 절제하는	6.1	7.8	2.2
교양	사고가 건전한, 생각이 깊은, 책을 읽는	4.1	13.1	6.1
신체특성	운동을 잘하는, 건강한, 외모에 관심, 멋있는	13.4	12.7	20.9
과업특성	열심히 공부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꿈이 있는	13.2	9.3	9.8
관계특성	친구 및 의리 중시, 이성에 관심과 교제, 여성 존중	15.4	9.3	13.4
자아특성	자신에 대해 고민하는, 정신이 건강한, 개성이 강한	7.7	0.0	4.3
여자다운 청소년의 특성들				
외향성	도전적, 자신감, 활발한, 감정표현, 암전, 수줍음, 비밀	9.2	23.2	11.9
호감성	배려, 예의, 어른 공경과 순종, 단정, 공손, 봉사, 착한	35.0	27.7	21
성실성	성실한, 정리 잘 하는	5.4	4.1	4.2
정서안정성	발랄한, 감성이 풍부한, 잘 웃는, 긍정적인	9.0	15.3	12.3
교양	독서 하는, 생각이 깊은, 똑똑한	3.7	7.6	5.1
신체특성	멋 내기 등 외모 관심, 몸을 중히 하는, 예쁜, 건강한	13.0	7.1	15
과업특성	열심히 공부, 꿈과 목표, 가사 돕는	13.2	8.9	9.3
관계특성	건전한 이성관, 우정관계 중시, 가족과 화목	10.0	7.7	10.9
자아특성	자기관리, 개성, 정체성 고민	5.1	0.0	5.1

주. 남자청소년다운 남자청소년의 특성으로 나온 총 반응 수는 성인 508개, 교사 205개, 대학생 416개. 여자청소년다운 여자청소년의 특성으로 나온 총 반응 수는 성인 431개, 교사 170개, 대학생 357개.

적 안정 그리고 높은 사고수준이 남자다운 청소년의 특성이었다. 성격을 제외한 나머지 차원의 경우, 건강과 외모에 대한 관심 등의 신체적 특성, 미래에 대한 꿈과 준비, 이성 등 대인관계의 중시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추구를 강조하는 반응들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성격적인 측면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교사의 반응은 성격에 더 편중되어 있었다.

표 3에서 보듯이, 여자다운 청소년도 남자다운 청소년의 경우처럼 성격적인 측면(전체적으로 성인 62.3%, 교사 77.9%, 대학생 54.5%)이 두드러져 매우 성숙한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높은 외향성과 호감성 그리고 정서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자다운 청소년은 암전하고 수줍어 할 뿐만 아니라 도전적이고 활발한 특성, 타인에 대한 배려와 순

중, 성실성, 정서적 풍부와 긍정적 정서 그리고 높은 교양 등을 가지고 있었다. 성격을 제외한 나머지 차원의 경우, 멋 내기 등 외모에 대한 관심과 건강 등의 신체적 특성, 미래에 대한 꿈과 준비, 이성 등 대인관계의 중시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추구를 강조하는 반응들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여자다운 청소년에서 성격적인 측면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교사의 반응은 성격에 더 편중되어 있었다.

남자다운 청소년과 여자다운 청소년을 비교해 보면, 이 둘 사이에 상당히 큰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성격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신체적, 과업적, 관계적 및 자아 관련 차원에서도 그 유사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반응들이 남녀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남자와 달리 여자다운 청소년의 경우, 얌전하고 수줍은, 단정하고 정리 잘하는, 감성이 풍부하고 잘 웃는 등 표현을 잘 하는, 몸을 중시하고 멋을 내고 예쁜, 가사를 돕는 등 전통적인 여성성과 일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은 여자다운 청소년의 경우에 성격차원 중에서 호감성과 정서 안정성 등 대인관계적인 측면이 강한 성격특성을 더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자의 유형에 상관없이 남자다운 청소년보다는 여자다운 청소년의 경우에 성격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였다.

남녀에 따른 행복한 청소년의 특성들

행복한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에 대한 특성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성격적 특성은 남자청소년의 행복에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었다. 전체적인 반응의 약 1/4 (성인 25.3%, 교사 26.4% 그리고 대학생 24.6%)

이 성격 특히, 외향성과 호감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자신감 있고 자기주장이 있으며, 믿음직하고 착하며 인기 있으며, 성실하고 긍정적이며 똑똑한 남자청소년이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이외의 차원에서 볼 때, 신체적, 과업적 및 관계적 특성(이 셋의 합이 성인 62.6%, 교사 74.9% 그리고 대학생 67.6%)이 남자청소년의 행복에 특히 중요한 요인이었다. 즉, 건강과 멋 및 운동을 겸비하고, 꿈이 있고 학업에 충실하여 인정받고, 친구와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남자청소년이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경제적 풍요와 같은 환경 특성 및 정신적 건강 등 자아특성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평가자 유형 간에 큰 차이점은 없지만, 대학생이 성인이나 교사에 비해 신체적인 측면을 더 강조한 경향이 있었다.

표 4에 제시한 여자청소년의 행복과 관련해서 볼 때, 성격적인 특성은 전체적 반응(성인 29.0%, 교사 37.1% 그리고 대학생 50.5%)의 3/1에서 2/1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평가자에 따라 그 차이가 컸다. 내용을 보면, 행복한 여자청소년은 자신감 있고 자기표현을 잘하며, 인기 있고 배려할 줄 알며, 깔끔하고, 정서적으로 긍정적이며 만족하고,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성격 이외의 차원에서 볼 때, 남자청소년의 경우에서처럼,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도 신체적, 과업적 및 관계적 특성(이 셋의 합이 성인 65.6%, 교사 58.5% 그리고 대학생 31.7%)이 그들의 행복에 특히 중요했지만, 평가자 유형들 간의 차이가 매우 현저하게 나타났다. 행복한 여자청소년은 예쁘고 건강하며, 하고픈 일을 하고 미래가 있으며, 친구와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 기타 경제적 환경요인 및 건전한 자아특성도 있었다. 평가자 유형 간의 차이점을 보면, 교사와 대학생은 성인에 비해

표 4. 남녀에 따른 행복한 청소년의 특성들

차원	반응내용	성인	교사	대학생
행복한 남자청소년의 특성들				
외향성	자신감, 자기주장, 도전적, 활동적, 적극적, 사교적	8.6	13.0	7.7
호감성	믿음직한, 착한, 인기, 배려, 어른 공경, 예의, 봉사	10.1	4.4	6.7
성실성	성실한, 책임감	1.9	3.3	1.8
정서안정성	긍정적, 만족하는, 쾌활한	3.2	4.3	5.8
교양	똑똑한, 취미 있는	1.5	1.4	2.6
신체특성	건강한, 운동 즐기는, 잘생긴, 키가 큰	13.3	12.5	21.8
환경특성	경제적으로 풍부한	3.6	2.9	6.8
과업특성	꿈이 있는, 학업 충실, 인정받는, 공부 잘 하는	19.5	22.1	18.8
관계특성	(이성)친구 있는, 화목한 가정, 가족이 건강한	29.8	30.3	27.0
자아특성	정신적 건강, 자신에 대한 사랑, 주체성	5.8	5.3	1.1
행복한 여자청소년의 특성들				
외향성	자신감, 자기표현, 사교적, 적극적	4.0	11.3	16.8
호감성	인기, 배려, 순수, 봉사, 착한, 여성스러운	10.6	5.1	7.3
성실성	깔끔한, 책임감, 성실한	0.4	1.2	4.5
정서안정성	긍정적, 만족하는, 밝은, 잘 웃는	10.0	8.7	16.9
교양	건전한 사고, 특기나 취미, 똑똑한	4.0	10.8	5.0
신체특성	예쁜, 건강한, 피부가 좋은, 귀여운, 키가 큰	20.5	9.8	6.6
환경특성	경제적 풍요, 자유로운 환경	2.7	2.1	3.7
과업특성	하고픈 일 하는, 미래 있는, 학업성적, 인정받는, 최선	14.2	19.4	11.0
관계특성	친구, 화목한 가정, 타인으로부터 사랑	30.9	29.3	14.1
자아특성	전전한 자아, 자기관리, 열등감 없는, 풍부한 경험	4.0	2.1	8.5

주. 행복한 남자청소년의 특성으로 나온 총 반응 수는 성인 466개, 교사 208개, 대학생 456개. 행복한 여자청소년의 특성으로 나온 총 반응 수는 성인 450개, 교사 195개, 대학생 374개.

외향성을 더 강조한 반면 신체적인 특성을 덜 강조했다. 또한, 대학생은 다른 두 유형의 평가자에 비해 관계적인 특성을 현저히 낮게 평가했다.

청소년의 행복에서 남녀 간을 비교해 보면,

우선 내용적으로 남녀 간에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외 신체적 측면에서부터 자아특성에 이르기까지 매우 비슷했다. 몇몇 차이점이 있다면,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의 경우에 성격적

인 측면 특히, 정서안정성 차원이 더 많이 강조되었다. 또한, 남자청소년의 경우 신체적 측면에서 건강과 운동이 중요한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건강뿐만 아니라 예쁘고 피부가 좋은 신체적 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의 행복요인을 평가할 때, 세

유형의 평가자들 간의 불일치가 더 크게 나타났다.

남녀에 따른 바람직한 청소년의 특성들

바람직한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특성이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성격적인 측면의 반응(성인 60.0%, 교사 53.2%,

표 5. 남녀에 따른 바람직한 청소년의 특성들

차원	반응내용	성인	교사	대학생
바람직한 남자청소년의 특성들				
외향성	씩씩한, 자신감, 활동적, 적극적, 도전적, 자기표현	9.9	8.0	9.5
호감성	믿음직한, 착한, 인기, 배려, 어른 공경, 예의, 봉사	35.5	25.8	16.8
성실성	책임감, 성실성, 규칙준수, 인내심, 시간관념	8.0	8.3	13.5
정서안정성	긍정적인, 밝은, 절제하는	2.9	7.9	4.9
교양	건전한 사고, 독서, 취미	3.7	3.2	3.4
신체특성	운동을 즐기는, 건강한, 잘생긴	8.6	5.4	8.7
환경특성	올바른 성교육, 경제적 여유	0.8	1.2	0.2
과업특성	꿈이 있는, 공부를 잘하는, 최선을 다하는	12.4	9.9	15.8
관계특성	친구, 부모를 사랑, 건전한 이성교제, 의리, 인정받는	16.1	7.9	19.9
자아특성	정체감 확립, 자신을 사랑하는, 개성 있는	3.1	2.0	1.1
바람직한 여자청소년의 특성들				
외향성	자신감, 사교적, 자기표현, 암전한	4.0	5.6	6.0
호감성	배려, 예의, 어른 존경과 순종, 봉사, 착한, 상냥, 단정	31.4	29.4	25.0
성실성	성실, 책임감, 부지런한, 시간과 규칙 준수, 알뜰, 깔끔	13.8	11.6	8.0
정서안정성	만족, 밝은, 명랑한, 긍정적, 잘 웃는	10.1	13.3	5.1
교양	건전한 사고, 독서 등 취미 있는	4.9	0.6	2.9
신체특성	건강한, 여성스럽고 예쁜, 순결한, 외모에 신경	9.3	11.0	11.5
과업특성	꿈이 있는, 공부를 잘하는, 최선을 다하는, 가사 돕는	10.7	12.7	15.4
관계특성	좋은 친구, 형제부모가 서로 사랑, 건전한 이성교제	13.2	10.0	17.2
자아특성	자기관리, 자기 몸 사랑, 열등감 없는, 탈선하지 않는	3.7	6.1	6.5

주. 바람직한 남자청소년의 특성으로 나온 총 반응 수는 성인 515개, 교사 253개, 대학생 422개. 바람직한 여자청소년의 특성으로 나온 총 반응 수는 성인 477개, 교사 181개, 대학생 372개.

대학생 48.1%)은 반응은 전체 반응의 1/2 전후를 차지했으며 특히, 성인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성격 중에서 씩씩하고 착하며 인기 있고 배려할 줄 아는 높은 호감성에 대한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씩씩하고 자신감이 있는 외향성과 책임감과 성실성을 갖춘 높은 성실성에 대한 반응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정서, 건전한 사고 등 정서안정성과 교양에 대한 반응도 있었다. 성격 이외의 차원에서 볼 때, 꿈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과업적 특성, 친구가 있고 가족이 화목한 관계적 특성에 대한 반응이 많았고, 운동을 즐기고 건장한 신체적 특성에 반응도 상당수 있었다. 또한, 환경 및 자아 관련 반응도 나타났다. 성격 이외 차원에서의 반응은 전반적인 패턴에서 평가자 유형들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 5에서 보듯이, 바람직한 남자청소년의 경우처럼, 바람직한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도 성격적인 반응(성인 64.2%, 교사 60.5%, 대학생 47.0%)이 전체 반응의 1/2 전후를 차지했으며 특히, 성인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호감성에 대한 반응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배려, 예의, 어른존중과 순종등과 같은 특성들이 주로 언급되었다. 그 다음으로, 성실성이나 책임감 같은 성실성 차원, 만족하고 밝으며 명랑한 등의 특성을 가진 정서적 안정성 차원에 대한 반응이 많이 나타났으며, 자신감과 사교적 등의 외향적 특성과 건전한 사고와 같은 교양적 차원의 특성도 있었다. 성격 이외의 차원에서 볼 때, 꿈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과업적 특성, 친구가 있고 가족이 화목한 관계적 특성에 대한 반응이 많았다. 또한, 건강하고 여성스럽고 예쁜 신체적 특성에 반응도 많았으며, 자기관리하고 몸을 사랑하는 등 자아 관련 반응도 있었다.

바람직한 청소년의 특성에서 남녀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의 바람직성을 판단하는데 만족하고 밝고 명랑한 정서안정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암전한, 상냥하고 단정한, 알뜰하고 깔끔한 등의 특성들은 바람직한 여자청소년만을 지칭할 때 나타난 반응들이다. 성격 이외의 차원에서, 여성스럽고, 예쁘고, 순결한 등의 신체적 특성과 가사를 돕는 과업적 특성 그리고 자기를 관리하고 몸을 사랑하는 등의 자아 관련 반응이 바람직한 여자청소년에 한해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표상이 청소년의 성별 및 성인, 교사, 대학생 등 평가자의 유형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그 결과, 아동 및 성인과 대조되는 청소년의 특성을 볼 때(표 1과 2 참조), 성격적으로 청소년기는 이성숙한 아동기에서 성숙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독특한 성격적 특성도 있었으며, 과업적 및 관계적 측면에서도 고유한 특성이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경향성에서 전반적으로 남녀청소년 간에 유사성이 매우 컸다. 뿐만 아니라, 평가자의 유형 간에도 그 유사성이 높았으며, 단지 교사가 남녀청소년의 어른과 대비되는 특성을 기술할 때 성격적인 측면을 더 강조했다. 청소년다운 청소년은 높은 외향성과 호감성 등 주로 성숙한 성격적 특성으로 규정되었으며, 신체적, 과업적 및 관계적 측면도 관련되었다(표 3 참조).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향성은 청소년의 성과 평가자의

유형에 상관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감성과 정서안정성 등의 성격차원과 신체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성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남녀 간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교사는 다른 평가자에 비해 남녀 모두 청소년다운 청소년을 평가할 때 성격적인 측면을 더 강조했다. 행복한 청소년의 경우, 외향성, 호감성과 같은 성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특히 신체적, 과업적 및 관계적 특성이 더욱 강조되었다(표 4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남녀 청소년 간의 차이는 매우 작았으며 평가자 유형들 간의 차이도 미미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청소년은 청소년다운 청소년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였다(표 5 참조). 이러한 평가에서 평가자의 유형 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작았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논의하겠다.

먼저, 성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성별에 상관없이 청소년기는 덜 성숙한 아동기에서 더 성숙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은 자아중심에서 타인중심으로, 의존과 무책임에서 독립과 책임감으로, 낮은 지적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이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 반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과 어른을(정태연과 류원정, 인쇄중; 정태연 등, 2002) 청소년이 연결해 주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아동에서 어른으로의 이행적인 특성 이외에 그들에게만 독특한 특성들도 가지고 있었다. 청소년은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반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성 등 관계에 대한 관심의 증가 그리고 과업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불안을 강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점들은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정태연 등, 2002), 청소년기를 기술하는 여러 입장들, 가령 질풍노도의 시기(Hall, 1904)나 갈등과 반항의 시기(Friedenberg, 1959) 혹은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입장(Erickson, 1959) 등의 특성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녀에 따른 청소년다운 청소년은 모두 성숙한 성격적 특성 특히, 높은 외향성과 호감성의 특성뿐만 아니라 신체적, 과업적 및 관계적 측면도 관련되었다(표 3 참조). 또한, 바람직한 청소년은 청소년다운 청소년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여(표 5 참조), 청소년답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특성이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남녀에 따라 아이다운 아이는 주로 외향성과 호감성 등의 성격적 특성 및 신체적 특성으로, 어른다운 어른은 호감성과 성실성 등 성격특성과 과업적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바람직한 아이 및 바람직한 어른과 매우 유사했다(정태연과 류원정, 2004).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격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각 성별 내에서 ~다운 사람은 그들이 이동이건, 청소년이건 혹은 어른이건 거의 상관없이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이러한 점들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어른을 성격적으로 규정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유형들을 규정하는 특성들, 가령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사교적이고, 타인을 배려하고 말 잘 듣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봉사하고 등의 특성들은 일반적으로 아동보다는 성인들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며 그들에게 요구하는 특성들이다. 즉, 이러한 특성들은 성숙한 성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혹은 특성들이며, 아동

과 청소년이 학습이나 훈련 등 교육을 통해 추구해야 할 목표들이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한국사람들은 개인을 평가할 때 성인의 입장에 근거하는 소위 성인 중심적 사회일 가능성이 높다.

행복한 청소년의 경우, 남녀에 상관없이 외향성, 호감성과 같은 성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특히 신체적, 과업적 및 관계적 특성이 더욱 강조되었다(표 4 참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할 뿐 아니라(정태연 등, 2002), 아이나 어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과의 차이도 큰 차이가 없었다(정태연과 류원정, 2004; 정태연 등, 2002). 즉, 기존연구에서 남녀에 상관없이 행복한 아이는 활발하고 낙천적이며 잘 웃고, 건강하며, 친구가 많고 가족이 화목하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경우였다. 행복한 어른은 건강하며, 친구가 많고 가정이 화목하며,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경우였다. 한국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동과 청소년 및 어른들에 상관없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은 행복의 평가기준이 상당히 보편적임을 시사해준다. 이는 발달적으로 서로 다른 시기에 있다는 차이점이 실제 개인적인 행복이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음을 함축한다. 또한, 한국인의 행복에서 관계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부각된 점은 기존 연구자들의 지적처럼(Berry, Poortinga, Segall & Dasen, 1992; Triandis, 1995), 한국사회가 친구나 가족 등과의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관계주의적 문화임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주의는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과 사회적 구조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소인데(최봉영, 1994; 최재석, 1965),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가족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른바 가족주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평가와 아이나 어른에 대한 평가 간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점 역시 존재했다. 먼저, 행복한 청소년과 바람직한 청소년을 비교해 보면, 두 경우 모두 성격적인 특성과 그 외의 특성들이 모두 관여했지만, 행복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신체적, 과업적, 관계적 등 비성격적이 특성이 더 강조된 반면, 바람직한 청소년의 경우는 특히, 호감성과 성실성 등 성격적인 측면이 더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아동 및 어른의 경우(정태연과 류원정, 2004; 정태연 등, 2002)에 비해 대단히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아이와 어른의 행복은 신체적, 관계적 및 과업적 특성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바람직성은 성격적 특성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결정되었다. 행복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의 속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반면, 바람직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규범적 당위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아동 및 어른과 개인적으로 행복한 아동 및 어른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기준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아동과 어른에 대한 판단기준이 두 개로 구분된 이중구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이러한 판단의 이중구조가 청소년의 경우에는 훨씬 약화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청소년과 개인적으로 행복한 청소년이 상당히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두 개의 판단기준이 각 개인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는데 가령, 행복이 개인적인 욕구충족에 더 가깝다고 한다면, 바람직성은 사회적인 요구에 훨씬 더 가깝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 개인적 행복 추구하고 상충될 때, 사람들은 전자를 희생하고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이 두 기준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적어도 사회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런 문제가 아동이나 어른보다는 청소년의 경우에 덜 심각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아이 및 어른과 대조되는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다운 청소년의 특성 및 바람직한 청소년의 특성을 남녀별로 비교해보면, 전통적인 성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반응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아이다운 아이와 어른다운 어른, 그리고 바람직한 아이와 어른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정태연과 류원정, 2004)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기존연구에서는 아동과 어른에 대한 평가에서 남녀에 따른 성고정관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일반적인 성고정관념에 따르면(김영희, 1998, 정진경, 1989), 남성은 직업 상황에서 높은 성취를 위해 필수적인 독립성과 지배성 및 통제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권위적이며, 과묵하고, 포용적이며, 감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반면에 여성은 복종적이며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고 타인을 정서적으로 돌보는데 필요한 동정심, 의존성, 언어지향성, 내성적 및 감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정태연과 류원정(2004)의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성별에 따른 아이를 평가할 경우에도 이러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다수의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어른다운 어른에 대한 평가는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과 거의 일치했다. 이는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이 매우 강력하여 어른뿐만 아니라 아동을 지각할 때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고정관념이 모든 연령대의 평

가대상자들에게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다. 청소년기를 평가할 때 성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은 아마도 이 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남녀에 상관없이 동일한 것들이 많고,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 역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행수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추후의 연구에서 좀 더 세밀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거의 대부분의 평가차원에서 청소년을 평가할 때 관여하는 차원이 아동이나 성인에 비해(정태연과 류원정, 2004; 정태연 등, 2002) 상대적으로 매우 더 많았다. 예를 들면, 아동과 어른의 경우 ~다운에 대한 평가나 그들의 바람직성에 대한 평가는 거의 대부분이 성격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그들의 행복은 신체적, 환경적이나 과업적 그리고 관계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는 성격적 및 비성격적 특성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 청소년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차원에 모두 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해결하거나 관여해야 할 과업이나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함축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이와 같은 다양한 청소년의 과업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졌다. 가령, 한국의 청소년 비행 연구들이 비행의 개인적 원인과 관련해서 다룬 변인들은 도덕성 발달, 자아중심성, 자아정체감, 자아개념, 신체이미지, 인지 및 성격적 측면들이다(곽금주, 윤진과 문은영, 1993).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성격특성 중에서도 호감정보다는 외향성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향성의 내용에는 적극적인 과업의 추구(가령, 도전정신이나 적극성, 활동 및 열정 등)와 자기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외향

성의 내용들이 과업적 특성이나 자아관련 특성과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유형의 특성이 특히 청소년기에 달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함축해 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몇몇 예외적인 구체적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측면에서 남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 매우 보편적임을 지적해 준다. 성인, 교사, 대학생 등 다양한 유형의 평가자들이 아동과 어른에 대하여 여러 차원에서 보고한 내용들은 대동소이했다. 이러한 점은 아동과 어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나 평가가 일부 계층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직업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사회와 문화의 영향에 노출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전반적인 현상임을 지적해 준다. 특히, 교사와 성인은 청소년의 양육과 교육 등 사회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당사자들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인식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을 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정태연과 류원정, 2004), 교사와 성인은 아동과 어른에 대한 평가에서 강한 성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아동을 교육할 때 그들의 성고정관념을 전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들은 청소년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한 성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청소년을 교육할 때 성고정관념에 근거한 역할이나 과업보다는 좀 다른 측면의 요구를 강조할 수 있다. 이러한 점도 추후의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남녀 청소년에 대한 한국인들의 사회적 표상을 살펴보았다. 한 가지 한계점은 본 연구에 참가한 교사의 성비가 매우 불균형

적으로 여성교사로 편중되어 있어서, 평가자가 남성인 경우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평가자의 성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보고한 결과는 한국인들이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에서 개인차를 측정하고, 이러한 개인차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여러 관련 변인들, 가령 청소년양육이나 교육에 대한 태도나 인식 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 대한 특정 사회적 표상이 실제 관련 행동과 중요한 연관성이 없다면, 사회적 표상이 갖는 중요성은 크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표상이 인생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매개를 통해서 주로 형성되는지 밝히는 것도 변화를 위한 사회적 개입에 함축하는 바가 클 수 있다.

참고문헌

- 곽금주, 윤진과 문은영 (1993). 한국청소년 비행 연구의 동향과 심리학적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2-27.
- 김영희 (1998). 한국형 성역할 검사. 아세아여성 연구, 27, 153-182.
- 김정운 (2001). 청소년 문제의 기원: 청소년은 처음부터 '비행청소년'이었다? 미발표논문.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옥분 (2003). 청년발달의 이해. 학지사.
- 정진경 (1989). 한국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현황과 그 갈등해소 방안을 위한 조사연구.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보고서.

- 정태연과 류원정 (2004). 아동과 성인의 성별에 따른 한국인의 사회적 표상.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121-139.
- 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2), 51-76.
- 최봉영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I, II*. 서울: 느티나무.
- 최상진 (1998). 사회적 표상이론의 체계. 미발표 논문.
- 최재석 (1965). *한국 가족제도사 연구*. 서울: 일지사.
- Bandura, A. (1964). The stormy decade: Fact or fictions? *Psychology in the Schools*, 1, 224-231.
-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 (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verman, I. K., Vogel, S. R., Broverman, D. M., Clarkson, F. E., & Rosenkrantz, P. (1972). Sex-role stereotypes: A curren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Issues*, 28, 59-78.
- Cole, M., & Cole, S. R. (2001). *The development of children*. New York: Worth Publishers.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Farr, R.M.(1987). Self/Other Relations and The Social Nature of Reality. In C.F. Graumann & S. Moscovici(eds.). *Changing conceptions of conspiracy*. New York: Springer-Verlag.
- Fiske, S. T., & Taylor, S. E. (1994). *Social cognition*. New York: McGraw-Hill.
- Friedenberg, E. Z. (1959). *The vanishing adolescent*. New York: Dell.
-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 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16-1229.
- Hall, G. S. (1904). *Adolescence*.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Hartung, B., & Sweeney, K. (1991). Why adult children return home. *Social Science Journal*, 28, 467-480.
- Jaspars, M. F. & Fraser, C. (1984). Attitudes and Social Representations in R. M. Farr & S. Moscovici(eds.). *Social represent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J. Y. and Sugawara, A. I.(1982). Awareness of sextrait stereotypes among Korean childre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7, 161-170.
- Moscovici, S. (1981). On the social representations. In J. P. Forgas (ed.), *Social cognition Perspectives on everyday understanding*. London: Academic Press.
- Mussen, P. H., J. C. & Kagan, J.(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4th ed. N. Y.: Harper & Row publishers, 339-345.
- Parsons, T. and Bales, R. F.(1955). *Family structure and the socialization of the child,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oe., Illinois free press.
- Serbin, L. A., Polishka, K. K., & Gulko, J. (1993). The development of sex typing in middle childho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8(2, Serial No. 232).
- Speitkamp, W. (1998). *Jugend in der Neuzeit: Deutschland vom 16. bis zum 20. Jahrhundert*. Goe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 Spence, J. T., Helmreich, R. L., & Stapp, J. (1974). The personal attribute questionnaire: A measure of sex-role stereotypes and masculinity-femininit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4(43).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lder, CO: Westview Press.
- Williams, J. E., Bennett, S. M., & Best, D. L.(1975). Awarwness and expression of sex stereotypes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635-642.

K C I

Social Representations and Gender stereotypes Held by Koreans on Adolescents

Taeyun Jung

Yoonmee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Using open-ended questionnair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social representations and gender stereotypes held by Koreans on adolescents. Participants were 123 adults, 49 teachers and 93 college undergraduates. According to the results, adolescence was characterized in personality by a transitive period from childhood to adulthood. Nonetheless, there were aspects unique to adolescence with respect to personality, individual tasks and social relationships. Adolescents worthy of the name were defined mainly by extroversion and agreeableness of personality, with relation to physical, task-, and relational aspects. Happiness for adolescents was determined mainly b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hysical health and socio-economical status. Desirable adolescents were very similar to those worthy of the name. There were no great differences in these results among the three types of judges and also, gender stereotype was not salient and instead, similarities between man and woman adolescents were striking.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features of Korean culture and gender stereotype.

key words : Social Representation, Adolescents, Gender Stereotype, Personality, Relationships,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asks.